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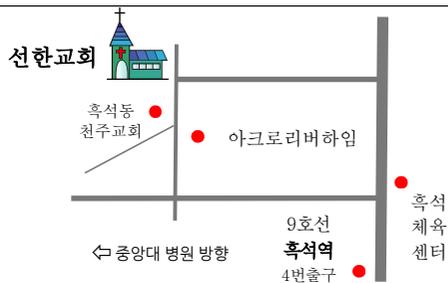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2: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교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전임전도사 김 진 만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교육전도사 윤 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해 외 협력 선교사	이금춘, 김인실
	박 희 태, 유 신 웅		조나단, 강야엘
장 로	조 계 승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석규
	조 윤 익, 박 영 근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맛보아 알지어다 (시34:8) Taste And See		
실 천 사 항	3가지 습관 기록	교사훈련	선교사의 삶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고린도전서 16:10)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 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14장 (통일찬송가30장)

교 독 문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찬 양 과 경 배 269장 (통일찬송가 211장)

기 도 윤 호 중 장로

말 씬 봉 독 고린도전서 16장 1 ~ 12절

설 교 **연보에 관한 교훈**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교회여 일어나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지혜로운 자의 30가지 습관 6 (잠24:17-22)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다음 주일부터 대면예배를 시작합니다.**

1. 주일예배: 주일예배는 1,2부 나누어 드립니다.
2부예배 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

2. 주중예배: 대면예배로 드리고
금요기도회는 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읽기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3. 수험생을 위한
기

각자의 자리에서 저녁 8시, 올해 수험생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 김유진, 김필립, 이지은, 장민우

수능일 : 2021년 11월 18일(목)

1.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과 담대함과 체력을 허락해 주시도록.
2. 수시모집 지원 후 면접과 실기 준비중에 있는데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고 최고의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3. 어려움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되도록

4.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 시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개인 경건 훈련에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의 예배가 회복 되도록

찬송 :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통 397)

본문 : 욥기 9장 2절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 말을 하는 욥의 마음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탄이 욥을 시험했을 때 욥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위로 하기 위해 찾아온 세 친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을 때, 욥의 마음에서 평안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8장 4절에서 수아 사람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 역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욥은 견딜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나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나의 의로움을 변론할 기회가 없어서 억울하다’ 라는 뜻입니다.

고난의 처음 순간에 찬양하던 마음이 왜 시간이 갈수록 괴로워하게 되었습니까?

욥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의 처음에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욥2:10) 그러나 고난 속에서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처지’에 점점 더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어찌...”(욥9:2)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괴로움 속에서도 견뎌야 합니까?

사탄이 처음 욥을 시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욥 2:3) 욥의 온전함이 사탄의 입을 막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다시 항변함으로 욥의 건강까지 고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이 처음처럼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킨다면’ 사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질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욥이 자신의 온전함을 마지막까지 굳게 지킬 때, 사탄에 대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으로 갈때까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몰랐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안에 안겼을 때, 욥은 비로소 고난 가운데 온전함을 지킴으로 거둔 승리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 고난들이 더 이상 기억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승리만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제목

연보에 관한 교훈 (고전16:1-12)

서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연보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 성도들의 연보

(1) 이 연보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한 것(3절)

(2) 연보를 하는 방법(2절): ①매주 첫날에(정한시기)

②각 사람이

③수입에 따라

④강압적이거나 즉흥적으로 하기보다 자발적으로 미리 준비함

(3) 연보를 사용하는 방법(3-4절):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통해

목적에 맞게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함

(4) 주의 일에 힘쓰는 일꾼을 향한 교회의 배려(10-11절):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본론

2. 교훈

(1) 나는 연보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2) 나는 연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3) 나는 주의 일에 힘쓰는 분들을 위해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는가?

결론

풍성한 물질과 기도로 주님의 사역에 함께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윤호중 장로

조윤익 장로

매일 Q.T.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	날짜 : 10월 18일
찬양	찬송가 83장 나의 맘에 근심 구름		
본문	욥기 9:11-24		
말씀요약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진노를 돌이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욥은 자신이 의로울지라도 대답할 수 없고 심판자에게 간구할 뿐이라 말하며, 까닭 없이 자신을 치시는 하나님 앞에 괴로워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온전한 자도, 악한 자도 함께 멸망시키신다고 말합니다.		
목상질문 1	하나님의 적대적 행동 9:11-16 욥이 의로울지라도 하나님께 대답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때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상처를 깊게 하시는 하나님 9:17-24 욥이 자신의 온전함을 거듭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던 것만큼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사나요?		
한절목상	욥기 9장 15,22절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인간의 불의함에 대해 수긍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그분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은총을 비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고서도 그는 여전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고백이 머리에서 내려와 가슴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평안은 머리와 가슴이 만나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때 찾아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이 예고 없이 저를 폭풍 한가운데로 몰아넣으시고 까닭 없이 아프게 하시는 것 같을 때, 단편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소서. 자녀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갈 길 모르는 저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소서.		

개인성경공부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찬양과 기도	그 누가 나의 괴롬 알며 (새 372, G) 다 표현 못 해도 표현하리라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1828년 뉴욕에서 태어난 호라시오 스페포드는 유능한 변호사며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부흥사 D. L. 무디의 사역을 몰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1870년 네 살 난 아들 호라시오를 열병으로 잃었고, 이듬해에는 시카고 대화재로 집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는 병약해진 아내와 가족을 쉬게 하려고 유럽 여행을 계획했는데 갑자기 처리할 일이 생겨 아내와 네 딸을 배에 태워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나 곧 그 배가 대서양에서 영국 철갑선과 충돌해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네 딸을 잃었고 아내 애나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스페포드는 바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자녀들의 사고 지점을 이르렀을 때 아내 애나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예쁜 네 딸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잠깐 헤어질 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그러나 비통함을 주체할 수 없었던 스페포드는 객실로 내려가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아들을 데려가셔도, 집과 재산을 가져가셔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 딸까지 데려가셨군요.” 한참을 울부짖는데 갑자기 한순간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그의 영혼에 임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찬양시를 썼습니다. 바로 그 곡이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그는 처절한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사랑의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나누기	욥기 10:1~12		
목상포인트	욥은 두 가지 질문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첫째는 “무슨 까닭으로 나를 정죄하시며 고난을 주십니까?”라는 것이고(2절), 둘째는 “주의 손으로 빚으셨는데 왜 나를 멸하십니까?”라는 것입니다(8절). 두 질문 사이에서 욥은 심판자이신 동시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임을 깨닫습니다. 욥의 고난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그는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에 비할 수 없는 큰 영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롬 8:18).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목상	욥은 피조물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 어떤 오해를 했나요?(3절)		
적용하기	나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은 어떠한가요?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나요?		
함께 기도하기	제게 고난이 닥칠 때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명과 은혜의 주님을 소망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전능자의 오묘함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날짜 : 10월 22일
---------	--------------------------	--------------

찬양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본문	욥기 11:1-11	
말씀요약	나아마 사람 소발은 말이 많다고 욥을 질책합니다. 또한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스스로 깨끗하다 한다고 지적합니다. 소발은 하나님이 지혜의 오묘함과 지식의 광대함으로 죄를 짓게 해 주셨음을 알라고 욥에게 권고합니다. 높고 깊고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구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상질문 1	말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겠는가 11:1-4 소발이 욥의 발언을 '도'라고 칭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4절) 남의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목상질문 2	전능자의 완전함을 찾을 수 있는가 11:5-11 소발이 말하는 '지혜의 오묘함'은 어떠한가요? 인간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오묘하심' 앞에 취할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한절묵상	욥기 11장 4,7절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소발은 욥이 스스로 정결하다 말하고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알지 못한다며 그에게 모욕과 조롱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발 자신도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욥을 함부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신비로우심을 아는 성도는 언제나 겸손하고 신중합니다. 형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환난 중에 탄식하는 욥의 말을 반박하며 그를 더 큰 고통에 빠뜨린 소발을 반면교사로 삼기 원합니다. 고난당한 사람이 힘들어서 터뜨리는 푸념을 듣고, 하나님을 변호하겠다는 자기 의에 빠져 경솔히 나서지 않게 하소서. 칼 같은 말로 남을 공격하지 않도록 제 혀를 제어해 주소서.	

매일 Q.T.	원인자요 판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탄원	날짜 : 10월 19일
---------	---------------------------	--------------

찬양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본문	욥기 9:25-35	
말씀요약	욥은 자신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복을 볼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자신이 불평을 잊고 즐거워한다 해도 하나님이 자신을 경죄하실 것이니 두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욥은 그분께 대답할 수 없다며, 그분의 위엄으로 자신을 두렵게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목상질문 1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니 9:25-31 욥이 시도해 보려는 고난의 해결책은 어떤 것인가요? 고난의 때를 잘 통과하기 위한 최선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목상질문 2	우리 사이에는 판결자가 없다 9:32-35 자신의 고난에 대해 공정한 판결자가 없다고 말하는 욥의 심정은 어떠한가요? 내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나요?	
한절묵상	욥기 9장 29절 욥은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유죄 판결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정직한 삶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이들의 수고가 전부 헛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욥이 두려워한 것은 자기 억울함을 밝히지도 못한 채 고난 중에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욥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용기마저 잃고 맙니다. 하지만 의로운 고생이 정말 헛된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때론 하나님이 저를 궁지에 몰아넣으시고 저를 피고로 삼아 심문하시는 것처럼 무섭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변호사가 되어 주시고 원수의 정죄를 무효화하시는 예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를 구속하신 주님의 의와 공로에 기대어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매일 Q.T.		주님이 손수 빛으신 존재임을 기억하소서	날짜 : 10월 20일
찬양	찬송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본문	욥기 10:1-12		
말씀요약	욥은 곤비한 가운데 불평과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과 변론하시는지 알려 달라고 탄원합니다. 욥은 자신이 악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손으로 빛으셔서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그의 영을 지키셨음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목상질문 1	왜 나와 변론하십니까 10:1-7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욥은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달라고 간구할 일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왜 나를 지으시고 멸하십니까 10:8-12 욥이 보기에 하나님의 이전 행동과 지금 행동은 어떻게 다른가요?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중 다시금 간구할 은혜는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욥기 10장 2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욥은 자기 문제에 대해 하나님과 변론하기 위해 그분을 법정에서 세우려 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하나님은 피고가 아니라 공의로운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십니다.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조차, 사람은 다만 죄인일 뿐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성도에게 복이 있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곤비한 순간에 달려가 옷자락을 붙들고 한탄할 상대는 하나님뿐입니다. 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 제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소서. 저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가 늘 기억하며 의지하게 하소서.		

매일 Q.T.		징벌 같은 고난 속에서 갈망하는 안식	날짜 : 10월 14일
찬양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본문	욥기 10:13-22		
말씀요약	욥은 자신이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고, 자신이 의롭다 해도 부끄러움과 환난으로 머리를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군대가 번갈아 치듯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를 더하십니다. 욥은 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옮겨지지 않은 것을 한탄하며, 죽기 전에 잠시나마 하나님이 자신을 평안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목상질문 1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니 10:13-17 욥이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공격과 징벌로 이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욥의 경우를 볼 때, 고난당하는 이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목상질문 2	잠시나마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10:18-22 욥이 하나님의 '떠나심'을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난 가운데서 내가 진솔하게 주님께 요청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욥기 10장 20-21절 간절함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욥은 죽기 전 잠시나마 평안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버려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의 기도는 절박하지만 옳은 기도는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히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분이 자신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평안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러한 오해 때문에 욥의 간구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맙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이 저를 죄인으로 낙인찍으시고 내치시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허물과 연약함,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죽음의 그늘이 덮이기 전에 저를 건지셔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숨 쉬게 하소서.		